

화 해 의 사 람 들

김동수 반희영 윤성 수현 선교사 78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막바지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해는 4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9월에 들어선 지금 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기에 겨울이 유난히 길어 지고 있습니다.

1월에서 12월 까지... 해마다 물 흐르듯 시간이 지나고 올해도 벌써 막바지를 향해 달려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곳 사역 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개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훈련원 건물도 생기고 꾸준히 함께 사역해 오고 있는 동역자들도 늘어나고 있음에 감사함이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선교 사역안에서 제 자신을 보고, 현지인 들을 볼 때 많은 부분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역이 계속 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기 보다는 깊어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7,8)

훈련원 학생들과 바울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공부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 보다 귀하고 중요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역의 연차가 늘어 가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하고 저 또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시도해 본적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필요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매 순간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아직까지는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적인 말씀 사역으로만 이들에게 가까이 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역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도 제가 이들의 다른 필요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사람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마음이 이곳 흑인지역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목회자 훈련원 학생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길.
2.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길..
3. 사춘기를 지내는 윤성이의(고1) 영육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건하여지고 감정과 정서와 생각 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4.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